

등록번호: 이천 라 00006 등록일: 2006년 8월 7일 발행일: 2023년 8월 15일 간행: 각별한 발행인: 박공형 발행처: 우리씨드 편집인: 서순혜
 본사: 경기도 이천시 천심마로 924번길 87 Tel. 031-634-7990 Fax. 031-634-7991
 경기도행동등록 41호 Vol. 65 1가문인물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배포합니다. 본지의 사진자료는 무단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SPECIAL
ISSUE

특집

경기, 아름다운 정원도시를 위한 변화의 시작

이제는 '조경'이라는 단어보다는 '정원'이라는 표현이 더욱 친근하고 대세를 이루는 말이 되어버렸다. 약 10여 년 전부터 서울에서 불어온 이 정원의 바람이 지금은 경기도를 거쳐 지방으로 조금씩 조금씩 옮겨가는 추세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서울은 꽃의 도시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면 경기도는 아직 각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도시를 달리하며 '경기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정원문화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기도 하다. 또한, 올해 봄에 개최된 순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지방에도 정원의 기운이 옮겨가는 분위기이다.

그만큼 이제 '정원'은 시대적으로 필수적인 아티팩트이고 문화의 한 콘텐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공공의 영역이든 민간의 영역이든 거스를 수 없는 필수 요소가 되었으며 특히나 공공의 영역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의 중요한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일방적이기보다는 이제는 대부분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경기도 각 지자체에서 진행해 왔던 사례를 현장 사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경기도의 경우,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속근초화류가 현장에 적용되었지만 단순히 여러 식물을 식재하는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5~6년 전부터 서서히 정원이 현장 속으로 들어와 지금은 몇몇 지자체(군포, 광명, 의왕, 김포, 파주, 화성, 오산, 고양, 이천, 안성, 용인 등)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군포시의 경우 도심의 교통섬, 가로녹지, 공원 등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고 초목갈 생태공원, 중앙공원, 철쭉공원 등 공원을 중심으로 관리가 용이한 오아시스 화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에 오고 있다. 특히 초목갈 생태공원의 경우 산으로 둘러싸인 넓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원터로써 최적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초화원, 그라스원, 야생화원, 호스타원 등 꽃을 이용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의왕시는 백운호수를 기반으로 한 일대를 아식



▲ 다년초와 백합으로 구성된 무지개 정원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 김포 김포중앙공원



▲ 군포 중앙공원 광장에 설치된 오아시스



▲ 주민들이 참여하여 가꾸어오고 있는 파주 가이4리 마을 정원

차게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개발 중에 있으며 그 핵심 요소 중의 하나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정원조성이다. 이에 앞서 2022년부터 도심 곳곳에 시범적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광명시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매년 자연 정원, 아리가든, 오아시스 등을 설치하여 그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 올해 경기정원박람회의 개최 장소로서 앞으로 정원 문화도시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게 해 주고 있다.

김포시는 기존 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초화원을

확대한 사례가 많다. 김포중앙공원의 경우 활용도가 적은 게이트볼장을 초화원으로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았으며 후에 임구 폭도 초화원과 암석정원을 조성하여 공원 전체적으로 정원을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금암공원, 마송공원 등 그 범위를 계속 넓혀 나가고 있다.

파주시는 마을 단위로 정원사업을 지원하여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모델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많은 마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그중 선정된 마을은 꽃을 직접 구매하여 식재하고 관리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물론 지

속적으로 유지 못하는 마을도 나오고 있지만, 모범적으로 수년간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해 온 가야 4리 마을 정원은 꽃과 함께 하는 마을로 매년 탈바꿈하고 있다.

안성시의 경우 안성맞춤랜드 사면 잔디밭을 이용하여 곳곳에 소정원을 조성하였고, 최근에는 입구에도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자연 정원을 조성하였다. 어느 정도 활착이 되면 가을 안성 바우덕이 축제에 맞추어 더욱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리라 기대해 본다.

이천시의 중심공원인 설봉공원은 호수를 중심으로 시민의 휴식처로 안성맞춤인 장소이다. 특히 입구 사면에 기존의 잔디를 벗겨내고 다양한 꽃잔디를 이용한 꽃잔디정원은 매년 4월 인파를 이끄는 경관을 이천 시민들에게 선물해 주고 있다. 넓은 공간적 장소가 있다면 앞으로 꽃잔디정원은 매우 매력적인 정원의 한 콘셉트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리라 전망해 본다.

그 외에도 많은 경기, 인천 지자체들도 도심과 공원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정원이 놓여 있고 이제는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조성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몇 년 후면 더욱 아름다워진 정원 도시가 경기도 곳곳에서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씨드'가 서울에서 보여 준 정원 기법과 기술력을 토대로 경기도 도시의 교통선, 가로녹지, 중앙분리대, 공원 등에 직접 조성한 다양한 정원을 사진을 통해서 일부 소개하고자 한다.



▲오산천 석축에 다양한 소재가 식재되어 봄부터 가을까지 다채로운 경관을 연출한다



▲군포 초약골 생태공원 유아숲 앞에 조성된 정원



▲이천 설봉공원 입구에 봄을 임팩트 있게 수놓고 있는 꽃잔디정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광명시 범일 음식문화의 거리에 조성된 아리까른



▲아파트가 많이 모여 있는 의왕 모락로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였다



▲2018.06. 부천 중4동 주민센터



▲2018.09 포천 고모저수지공원



▲2018.07 파주 금곡리 마을 정원



▲2019.04 이천 도자축제



▲2019.06 파주 가이리 마을 정원



▲2007.07 일산 킨텍스



▲2009.06 파주 서대리



▲2016.04 군포 철쭉축제



▲2019.06 김포 철쭉축제 아생화원



▲2019.06 용인 금화어린이공원



▲ 2019.07. 동탄 문화학습터



▲ 2020.05 이천 에스파크



▲ 2020.05. 일산 호수공원



▲ 2020.07 군포 복합문화센터



▲ 2020.07 김포 금벌공원



▲ 2021.07 고양 덕양구 용마루어린이공원



▲ 2022.05 광명시 교통섬



▲ 2022.04 인천수목원



▲ 2023.05 군포반월호수공원



▲ 2023.06 군포 초목생태공원 호스타원



▲ 2023.06 김포 결포중앙공원 아생화원



▲ 2023.06 김포 결포중앙공원 입구



▲ 2023.06 의왕 소방서앞 교통섬

2023 조경가드닝 기능실습 멘토링

“우리씨드 그룹에서 7월 20일~21일 기능훈련 멘토링 시행”



▲ 식물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과 식재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경가드닝 멘토링의회가 국제기능올림픽 조경가드닝 부문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사전 실전교육을 위해 약 2년 전 구성되었다.

조경가드닝에 필요한 목공, 포장, 조적, 수경, 식재 5개 공종의 국내 대표업체를 위주로 구성되었고 ‘우리씨드’는 식재 파트의 멘토 기업으로 선정되어 멘토 역할을 해왔다.

올해에는 이전의 이론 위주 지도교사 직무연수회나 공종별 기능훈련 동영상, 학교 방문 지도와는 달리 처음으로 참가팀의 지도자와 선수들이 모여 지난 7월 13일~14일과 7월 20일~21일, 두 차례에 걸쳐 ‘2023 조경가드닝 민간기능경기대회’ 출제설명회 및 기능훈련 멘토링을 시행했다.



▲ (주)우리씨드 이천농장에 조성된 정원을 직접 보면서 현장 설명을 듣고 있다.

이번 멘토링에는 고교팀 8개 팀(수원농생명과학고, 용인바이오고, 공주생명과학고, 김해생명과학고, 호남원예고, 남원농생명고, 금산산업고, 강릉중앙고), 대학팀 4개 팀(배재대, 신구대, 한국전통문화대, 강릉원주대) 총 12개 참가팀의 지도자와 선수 총 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차로 목공 부문과 포장 부문 실습은 각각 (주)디자인파크 실내 실습장과 (주)이노블록 화성 공장에서 시행되었고 2차로 조적, 수경, 식재 파트의 실습은 (주)우리씨드 이천농장에서 2일에 걸쳐 시행되었다.

식재 파트는 멘토링에 앞서 (주)우리씨드 이천농장에 조성된 정원, 오아시스, 수직 정원 등을 직접 보고 설명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실습 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본격적인 멘토링은 먼저 실내에서 식물(초화류, 관목)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과 식재 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교육이 진행되었고 이어서 실외에 마련된 교육장에서 초화류의 선정 및 배치 기법에 관해 멘토의 설명과 시연이 있었다. 기능 시연을 한 뒤 직접 학생들이 배치를 해보면서 질문을 하고, 다시 지도해 주는 과정으로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완성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개선점을 확인해주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한편 2023 민간기능경기대회는 9월 6일(수)~7일(목) 서울대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민간기능경기대회 1위, 2위 팀은 올 10월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가 시행하는 최종 선발전을 통해 ‘2024 리옹 국제기능올림픽’ 조경가드닝 한국 국가대표로 확정된다.



▲ 초화류의 선정 및 배치 기법에 관해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



▲ 학생들이 직접 배치해 보는 실습 과정에서 식재 배치에 대해 지도해 주고 있다.

Tip WorldSkills Competition 2024 Lyon

2024 리옹 국제기능올림픽이란?

- 청소년(만 17~22세) 근로자들의 직업 기술을 겨루는 국제 대회.
- 최신 기술 교류와 진선, 각국의 직업훈련제도 및 방법에 대한 정보교환 목적.
-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가 있는 월드스킬스 인터내셔널이 주최.
- 89년 이후로는 2년에 1번씩 개최되며, 제47회 대회는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됨.

TREE ①

새로운 식물 *Populus nigra* 'Sky Tower'

포플러 '스카이 타워'



박공영 박사

최근 지구는 찰떡 끓고 있다. 이제는 지구 온난화라는 단어에서 지구 열대화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도 전혀 없는 불볕더위와 폭우를 동반한 장마의 영향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장마가 오기 전 광주전남 지역은 강과 저수지는 메마르고 급기야는 제한 급수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또, 장마의 시작과 함께 폭우를 동반한 바람은 많은 인명 피해와 농경지를 침수시

키고 있다. 이런 환경재앙이 지구촌 모두의 일상이 되는 게 두렵기까지 하다.

사실, 도심 콘크리트는 물을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대신 낮은 곳으로 집중되어 불시에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바다로 흘러가 버린다. 그리고 우리는 또 가뭄과 물 부족에 시달려야 한다.

도시의 열섬현상은 이제 더 내버려 뒀서는 안 된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전 세계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물의 역대 사용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 빗물을 가용하게 저장하고 또, 토양 속으로 스며들게 하며 도시의 열 저장을 위한 대안을 연구해야 한다.

이번에 소개할 나무는 탄소를 가장 많이 포집하는 역할을 하는 나무 중 하나이며, 아주 악한 바람에도 도시의 열을 식히기 위한 물 펌프질을 쉬지 않고 하는 나무를 소개할까 한다.

미루나무 꼭대기에 조각구름이 걸려 있네~



포플러에 대한 예찬이다.

사실 포플러는 양버들, 미루나무, 사시나무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우리는 식물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말을 붙여서 사용한다. 그러나 세계적인 공통의 식물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학명이라고 한다. 학명은 속명과 종명 그리고 명명한 사람을 함께 표기하여 나나 내는 게 원칙이나 명명자는 삭제해도 무방하다.

즉, 양버들은 *-Populus nigra var. italica*이고, 미루나무는 *-Populus deltoides*, 사시나무는 *-Populus davidiana*이다. 그리고 우리 토종인 황철나무는 *-Populus maximowiczii*이다. 이 모두가 학명의 속명인 포플러로 통칭해서 모두 포플러라 할 수 있다. 다만 가장 작은 단위의 이름인 종명이 다른 점으로 그 식물에 단 하나뿐인 세계 공통 이름이 붙여진다. 따라서 앞으로는 포플러에 대한 이름의 혼동을 없기를 바란다.

포플러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관찰된다. 공통적이려면 매우 생장이 빠르고 건조 내성은 물론 물가에서도 잘 자란다는 특성을 가졌다. 다만 물가에

서 잘 자라는 품종과 건조에 강한 품종의 차이는 잎의 생김새와 잎 뒷면의 털의 유무 그리고 수직형이나 아니냐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우리는 포플러와 연관된 속담으로 '사시나무떨듯 타거나 혹은 극도의 공포를 느낄 때 파르르 떠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사시나무 떨듯이란 표현처럼 사시나무의 모양 즉, 포플러의 잎이 아주 악한 바람에도 잘 움직인다는 뜻으로 사용된 말이다.

식물의 잎은 기공을 통해서 수분을 증발시킨다. 식물이 수분을 뿌리로부터 흡수하고 잎으로 증발시키는 작용에 있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식물의 수분포텐셜이라는 이론을 성립시킨 것으로 100m가 넘는 나무가 꼭대기까지 물을 펌프질하는 불가사의를 풀었다.

식물이 강력한 태양이 비추는 더운 여름 물을 퍼올리고 광합성을 함으로써 수소와 탄소를 고정하고 남는 산소를 기공을 열고 체외로 내보낼 때 사용하지 않은 물도 함께 내보내게 된다. 이때 기화열을 주변에 남기게 되어 숲속의 여름은 시원하다.

아직 완벽한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기초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포플러가 다른 나무에 비해 주변 온도를 약 2℃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플러 중에서도 '우리씨드'가 개발한 포플러 '스카이타워'가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플러 '스카이타워'는 필자가 텐산산맥의 줄기에서 채집한 4종의 포플러 중에서 선별한 것으로 이탈리아 포플러와는 다르게 표피가 검은색이 아닌 점이 다르고 나무 모퉁은 다 자랐을 때 아래위가 거의 같은 폭으로 자라는 H형을 이루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또 하나가 있는데, 잎의 모양이다. 잎 표면은 왁스층이 발달해 반짝이고 뒷면은 털이 없는 다이아몬드 형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잎의 결각 (잎의 가장자리가 깊이 패어 들어 갭이 틈나 같고 잎 표면이 평평한 게 아니라 물결 모양으로 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잎줄기가 납작하게 비행기 날개를 닮았다. 그 잎줄기는 보통 줄기에 세로 면을 하고 있는데 조금의 바람만 불어도 좌우 균형이 깨져 살랑거리며 움직인다.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면 이내 사각거리는 소리와 가려진 가지 전체가 춤을 추며 바람 소리를 낸다. 따라서 수

분을 많이 공중으로 날려 보내게 되어 그 주변이 더욱 시원해지는 이유가 된다.

포플러 '스카이타워'는 줄기가 곧고 표피는 매끄러워 흑양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포플러와는 매우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1년에 약 4m 정도로 빠르게 자랄 뿐만 아니라 모양을 별로 가리지 않는 속성수이다. 특히 물을 좋아해 도시의 둔치 및 시민들의 산책로에 심으면 효과적이다. 포플러의 공기

정화 능력과 탄소 저장은 이미 검증되었고, 도시의 온도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는 도시의 새로운 대안 식물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아름다운 공원이거나 수변 공간의 경관 식물로 혹은 산책로의 가로수로 특히 추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포플러 '스카이타워'는 꽃을 피우지 않아 꽃가루를 날리지 않는 장점이 가졌다. 🌸



용도가 다양한 전천후 재배화분!

매직박스(Hanging Garden)

(도시농업 텃밭, 경이화분, 가로 화단에 특화된 저관리형 화분)

특징

- 화이트 톤의 심플한 형태와 색상으로 식물이 돋보이는 연출이 가능합니다
- 폴리프로필렌 재질(P.P)이며 내열성 및 강도가 좋아 튼튼하게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 공간 제약 없이 디자인 활용성이 다양합니다
- 토양층과 저수층이 분리 가능한 이중구조로 되어있습니다

FEATURE



디자인 활용



빗물저장형 관수시설



분리형 화분

CASE

- 옥상·베란다, 도로·가드레일, 가로등·기둥에 정원 연출, 최고의 도시농업을 텃밭 화분!

재배 후 현장에서 결합하여 깨끗하고 관리가 쉬워집니다

우리씨드
URISEED

www.uriseed.com

구입처. 031-634-7990

식물과 사람이 행복한 추식구근(秋植球根) 이야기

추식구근의 계절, 가을이었다.

추식구근은 가을에 심어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다. 봄, 봄을 가장 빠르게 불러와 우리의 정원에 뿌려놓는 마음 좋은 친구들이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정원 식물들과는 경쟁하지 않는다. 서로가 공간과 시간을 공유해서 행복한 정원에 이르게 하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된다.

우리씨드그룹 박공영박사



구근 식물, 일명 ‘알뿌리 식물’

씨앗은 대체로 작은 알갱이 형태로 발아와 동시에 성장을 위한 일을 만드는 기관이지만, 구근은 이미 성장에 필요한 다량의 양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구근 식물은 뿌리나 줄기에 혹은 몸의 기관에 다량의 양분을 저장하고 그 스스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진화된 씨앗과 같은 존재이다. 이 구근을 가을에 심어 봄에 저장된 양분으로 겨울을 나고 봄에 즉시 꽃 피우는 식물을 추식구근이라 부른다.

그 종류는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겨울이 추운 곳에서도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종류는 조금은 한정된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종류는 튤립과 수선, 무스카리, 하야신스, 알리움, 크로커스가 있다. 그리고 최근 점점 인기를 얻어 가고 있는 패도, 실라, 바람꽃, 엘레지, 치오노독사, 스노우드롭, 현호색 등이 있다.

이들 모두는 내한성이 강해 우리나라에서도 잘 생육되고 어떤 종들은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매년 그 수를 늘려가는 원시성을 가지고 있다.



봄꽃이 돋보이는 상대식물을 고르기

우리의 행복한 초자연정원에 함께 할 추식구근의 선택은 다분히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이른 봄, 다른 식물이 자라기 전에 꽃을 피우게 되므로 단 순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다.

다만 늦은 봄까지 계속 피는 겹꽃 튤립이나 만생종 튤립, 만생종 수선, 그리고 5월 말에서 6월에 피는 알리움 등은, 기존에 심어서 자라는 봄부터 여름, 가을의 정원 식물에 맞춰 선정하는 게 적합하다. 이때 겹꽃 튤립처럼 5월까지 계속해서 꽃을 피우는 종류의 경우는 기존의 정원 식물과 잘 어울리게 심는 것이 좋다.



조팝나무 기타 관목은 물론 다른 정원 식물의 잎이 완전히 피어날 때까지도 꽃이 계속 피어 있기 때문에 상대 식물들과 잘 어울리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알리움은 주로 키가 크고 꽃이 5월 이후 피어나므로 다른 식물과 조화롭게 혼합되는 게 중요하다. 대표적인 상대 식물은 털수염풀, 혹은 그 시기에 꽃이 피는 톨풀, 메발풀, 붓꽃, 병꽃, 말발도리, 황금조팝 등과도 잘 어울린다. 무스카리, 수선, 하야신스, 흙꽃 튤립 등은 기타 정원 식물이 자라기 전 혹은 꽃 피기 전 꽃을 피우고 사라지는 종들이기에 이들 추식 구근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들과 어울리는 몇몇 일년생 식물과 다년생 식물 중 꽃잔디, 혹은 금낭화, 복수초 등 이른 봄에 피는 다년생 식물과 비올라, 마가렛, 물망초 등 일찍 피어나는 1년생 봄 식물을 함께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년생 식물은 가을에 미리 뿌려 두는 것이 좋다.

추식구근의 새로운 식재방법



▲ 격자형태로 심긴 튤립정원

우리는 흔히 튤립 식재를 할 때 눈에 버 싹는 모양으로 좌우의 간격을 나열해서 심는다. 이 방법은 네덜란드나 구근 생산지에서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재배지 식재 방식이다. 햇빛과 양분을 골고루 주기 위한 전략이고, 또 변이종이나 흑시 있을 수 있는 잡종을 가려내기에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원은 격자형이 아니다. 특히 우리의 행복한 초자연 정원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자연스럽고 풍성하고 주변 식물들과도 잘 어울려야 한다.”
“자연에서 군락을 형성하듯 심어야 한다.”

추식구근은 종류와 품종마다 고유의 특징이 있으며, 이 특성을 알고 점 군에야 아름답고 건강한 정원을 조성할 수 있다.

심을 자라기 선정이 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방식으로 심어 보자. 추식구근의 종류나 품종 혹은 상품의 질적 차이로 구근 크기가 다르다. 식재 깊이는 구근이 큰 종류부터 깊게 심는다. 따라서 구근이 큰 종류를 먼저 심고 작은 종류를 늦게 심는다. 자연스럽고 좋은 효과를 위한 구근 배치 노하우는 간단하다.

“두 손에 적정량의 구근을 담아 윗손가락이 닿을 무렵 아래에서 살포시 던지면 자연스럽게 자리잡는다.”



이때 보통 사람의 경우 알리움기간티움은 5~7개, 대형수선 및 프리틸라리아 (황제패도)의 경우는 7~10개, 하야신스, 튤립 일반 수선의 경우는 20~30개가 잡힌다. 또, 작은 야생튤립, 무스카리, 크로커스, 아네모네, 알리움 몰리 등과 같이 작은 구근은 약 40~50개가 된다.

먼저 큰 종류의 구근부터 (구근 크기의 2~3배 깊이로 심어야 하니) 툭 툭 던져 깊이 심고, 그다음 작은 종류를 순서로 점점 식재 깊이를 얇게 심어 간다. 이때 같은 품종의 개화기를 다르게 하려면, 크기가 다른 구근을 심을 때와 같은 깊이에 심어주면 된다. 크기가 작은 구근과 같이 심은 것은 꽃이 더 빨리 필 것이고, 반대로 큰 구근과 같이 심은 것은 꽃이 더 늦게 필 것이다.



구근을 툭 던져 심으면 여러 개가 모여서 핀 포기도 되고 2~3개나 1개씩 떨어져 피는 것도 있어 정원에 더욱 자연스럽고 화려해 진다. 그러나 구근의 양은 동일하거나 적거나 아닌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심는 방법은 여러분의 봄 정원에 생기를 불어 넣을 뿐만 아니라 더욱 화려하고 더욱 고급스러우며 개화기가 매우 긴 봄정원을 선물할 것이다.

구근 크기로 식재 깊이와 개화시기 조절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구근의 크기이다. 대체적으로 구근 크기가 식재 깊이를 결정하고 꽃 피는 시기를 결정한다. 식재 깊이는 구근 크기의 2~3배이다. 물론 같은 품종을 심더라도 꽃 피는 시기를 달리하고 싶다면, 어떤 것은 4~5배 심고, 어떤 것은 2~3배로 심는다면 개화시기는 약 10일 정도 차이를 내고 피어나며, 이것이 개화기를 늘리는 팁이다.

그렇다면 구근을 밖으로 노출되게 심으면 더 빨리도 필 수 있겠네? 물론 그렇다. 다만 우리의 겨울은 노출된 구근을 매섭게 공격한다. 추위도 그렇지만 겨울 건조는 구근의 싹을 죽여 버릴 수도 있다.

“꽃을 좀 더 빨리 보고 싶다면 얇게 심되 겨울 보온을 충분히 해 주고, 물을 자주 주어 건조하지 않게 해주면 더욱 빨리 꽃을 볼 수 있다”



온실에서 앞당겨 출하할 목적으로 구근을 반쯤만 묻어 재배하여 빨리 출하하는 축적 재배 방법도 가능하다.

색의 조화가, 곧 정원의 느낌

또 하나의 구근 특징은 화색이다. 예를 들면 수선은 노랑과 흰색이고 알리움은 대체로 보라색이며 구근 아네모네는 코스모스와 같은 수수한 혼합색이며, 히아신스는 푸른 계열의 혼합색이 강하다. 튜립은 노랑과 빨간색, 보라색, 하얀색 등 강렬한 원색이다.



따라서 이들 특성을 알고 식물을 혼합하는 것이 좋다. 혼합하는 방식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추어 혼합한다. 이런 때 흰색의 존재는 정말 대단하다. 어떤 색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강렬한 빨간색을 잘못 사용하면 좀 어질척진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흰색을 섞는 순간 강렬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연출한다.

“최근 추천하는 트렌드는 유사한 톤의 색 혼합이다.”



많은 경우 ‘파스텔 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의미를 조금 좁혀서 유사한 색깔의 파스텔 톤으로 혼합하는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면 흰색계의 수선과 흰색계의 튜립, 흰색계의 히아신스를 함께 군식시키거나 같은 튜립이라도 같은 계열의 색을 섞는 것을 추천한다. 이때도 어떤 색과도 잘 어울리는 색은 흰색이며, 흰색 대응으로 연한 핑크와 맑은 아이보리, 노란색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혼합하여 같이 심을 종류들이 선정되었다면 일반 잔디만 있는 곳이나 노출지에 심지 말고 되도록 다년생 혹은 일년생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심는 것이 한결 자연스럽고 더욱 고급스러워짐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새로운 튜립 상식

튜립은 전 세계에 약 75종으로 이들은 4개의 아속으로 분리된다. 다양하게 육종되어 15종류의 그룹으로 나뉘며 현재 약 3000종 이상의 품종이 등록되었다. 이 중에서 최근 국내에 새로운 종류가 소개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진다.

매년 더 풍부해지는 야생튜립

야생 튜립은 중앙아시아에서 스페인 포르투갈에 이르기까지 약 150여 품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종으로 원시성을 가지고 있어 매년 꽃을 피우는 특성이 있고 매우 빨리 피어난다. 구근의 크기도 일반적인 원예 튜립보다 매우 작다. 따라서 식재 깊이도 5-10cm로 얕게 심으며, 3월 말에서 4월 초에 피어난다. 크로커스가 피어날 때 피는 극 조생종 품종이다.

이들은 야생화와 같이 종자가 매우 잘 달리는데, 굳이 다른 일반 튜립처럼 꽃이 진 후 꽃대를 잘라 종자를 제거해 줄 필요가 없다. 이들 종류를 정원에 심게 되면 매년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야생처럼 숫자를 늘려가며 더욱 풍성해진다.

이제 잔디밭 혹은 정원의 앞자리에 다년생 식물과 함께 심어 매년 꽃을 감상하고 더욱 풍성한 봄을 맞이해 보자. 다음과 같은 품종들이 대표적이다.



목단과 같은 겹꽃 튜립

우리는 튜립에 익숙하다. 하지만 고정관념을 버리기에는 매우 힘든 것도 사실이고 또는 몰라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겹꽃 튜립은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겹꽃 튜립은 북정원에서 아주 고급스럽고 풍요로우며 엄청난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조생종과 만생종으로 나뉘며 이들은 종자를 맺지 않기 때문에 거의 한 달을 꽃피운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꽃이 진 후 꽃대를 잘라주어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다.

이들 품종은 기타 정원 식물들과도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절화용으로도 아주 좋다. 다음과 같은 품종들이 대표적인 종이다.



추식구근의 생육 특성 및 관리

내가 선호하는 추식구근이 선정되면 우선 그 품종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구근의 크기가 그 품종의 키도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 봄 가뭄이 끝나기 무렵에 장마와 고온다습한 환경이다. 이런 자연환경의 경우 뿌리의 기능이 매우 복잡하다. 식물들은 아주 극한 건조에 있다가 갑자기 장마의 시작으로 토양에 물이 꽉 들어찬다. 그리고 또 장마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극고온으로 접어들다.

이런 때, 사람도 견디기 어렵다. 식물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사계절이 뚜렷한 환경이 우리의 자연환경이다.

추식구근은 가을부터 땅속 뿌리가 성장하고 이른 봄 시원한 기후에서 최성기를 보내고 고온기에 사그라진다.

이런 극한의 자연환경은 구근들의 생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추식구근 재배의 핵심이다.

많은 분들은 튜립을 비롯한 추식구근들이 매년 퇴화한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상식이다. 그렇지 않고 다만 생육 적지가 아니고 재배관리의 이해가 부족한 따름이다. 대부분의 추식 구근이 자라는 곳은 물기가 많은 곳이지만 배수가 잘되고 통기성이 좋은 곳이다.

특히 서늘한 기온이 좀 더 길게 유지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재배 기술로서 이런 자연환경을 극복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정원에 양귀배수를 통한 방법으로 배수력과 통기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관수장치의 적용으로 언제든지 물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생육기간을 좀 더 늘려주기 위해서는 멀칭을 하거나 개화 후 고온에 대비하여 차광을 해주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특히, 반드시 토양 살균과 살충은 기본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매년 구근들은 두세 배씩 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제시한 방법은 기존의 정원에서는 어려운 이야기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추식 구근재배의 기본을 지켜 관리한다면, 지속 가능한 초자연 정원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팁에 유의하는 게 좋다.



TIP

행복한 초자연 정원을 만드는 팁



- 1 심기 전 토양 살충, 살균제를 반드시 뿌리자.
- 2 퇴비는 양분이고 토양을 개선한다. 충분히 투입하자.
- 3 빨리 심자. 가을에 뿌리를 완전히 내려야 겨울 가뭄을 견딜 수 있다.
- 4 구근은 물을 좋아한다. 특히 겨울 건조와 꽃피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물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 5 비료를 주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월 중순 썩이 나기 시작하면 1회 그리고 3월 중순. 잎이 2장으로 전개되면 1회 복합비료 및 황산가리를 각각 20g/

㎡씩 뿌려주면 좋다. 복합비료는 주로 키와 구비대를 촉진하고 황산가리는 구근을 단단히 해 저장성을 높여준다.

- 6 꽃이 피면 태양을 가리자! - 튜립을 비롯한 구근들은 양지성 식물이다. 하지만 꽃이 피면 일정 부분 해를 가려 주는 것이 꽃을 오래가게 한다. (촬영용 지가 좋은 이유다)
- 7 첫 꽃잎이 떨어지면 꽃대를 자르자! - 꽃의 지는 모습은 보지 않는 것이 좋다. 마늘종을 따듯 꽃이 지기 시작하면 서둘러 꽃대를 잘라 잎의 양분이 뿌리로 가게 한다.
- 8 꽃이 잘 때부터 우리나라의 기온이 급속하게 올라간다. 이때 최대한 서늘하게 해주는 것이 잎의 양분이 뿌리에 더 잘 내려가 저장되고 내년엔 2개의 꽃으로 보답한다.
- 9 5월 20일 이후 잎이 완전히 누렇게 되면 줄기를 가위로 잘라 내거나 천천히 당기면 줄기만 속 빠져나온다.

가을에 심는 봄 꽃!

튜립, 수선, 무스카리, 알리움기간티움

아름다운 튜립, 수선, 무스카리, 알리움 등 이 모든 봄꽃은 가을에 심어야 합니다. 가을에 심는 구근 식물들은 기존의 야생화 화단, 꽃잔디 화단, 잔디밭 등 어떤 자물이 있어도 심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우량의 구근(묘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세요."

우리씨드 URISEED www.uriseed.com
구입처. 031-634-7990



우리씨드

로열티 품종

URISEED Royalty Varieties

로열티 품종-①

가우라속(Genus Gaura)

가우라는 일반적으로 일년생, 이년생, 다년생 식물과 아관목의 20여 종의 속으로 북미의 축축한 지역과 대초원에서 자란다. 이들은 옅은 호색하고 단순하고 장형에서 타원형 혹은 수저 모양이며 깃털 모양으로 갈라진 가지엽이 있다.

새로운 꽃은 주로 늦은 오후에 피어 다음날 정오를 넘기면서 사그라들어 수명이 짧아 주로 밤과 오전에 가장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우리씨드그룹의 모기업인 우리꽃연구소는 창업 이래 고급 정원용 야생화의 도입은 물론 야생화 육종과 신제품 연구 개발을 통한 끊임없이 시장을 개척해 왔다. 그리고 2008년 일본을 시작으로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 호주, 그리고 남미에까지 우리의 품종을 수출하고 로열티를 거두어들이고 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아름답고 경쟁력 있는 신 품종을 개발하여 현장에 공급, 적용할 계획이다.

이 코너에서는 각광받고 있는 우리씨드의 로열티 품종들을 매회 소개하고자 한다

가우라 *Gaura*

가우라는 새순이 나오면 무조건 꽃을 피우는 총상의 꽃차례를 가지며 매우 장기 개화 형이다.

이른 봄부터 피어 가을 서리가 올 때까지 꽃을 피우고 있다. 일반적인 품종들은 키가 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나비가 날아 앉는 듯한 아름다움을 준다.

최근에 개발되는 품종들은 60cm 이하로 자라고 그 대표적인 종은 우리꽃 연구소가 개발한 베이비 시리즈가 있다. 서리에 내한성은 강하지만 우리나라

라의 전주 이남에서는 월동이 가능하고 경기 이북에서는 겨울 보온을 필요로 한다. 재배는 비옥하고 축축하며 밝은 태양 아래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기르나 건조하거나 부분적으로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란다. 해충 및 질병은 거의 없어 정원의 테두리나 도로가 혹은 혼합식재의 필수 품종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혼합정원에 빠지지 않을 만큼 인기가 높은 데 특히 장기개화를 요하는 도로가 등에 열식해도 좋다.☀



유럽의 박람회 전시되어있는 가우라 '베이비퍼플'



가우라베이비의 다양한 사진이 외국 사이트에 소개되고 있다.



군식되어져 있는 가우라 '핑크리본'



가우라 품종 연구시 전경



도로변에 다양한 가우라품종으로 군식되어져 있는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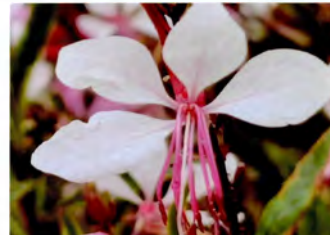
무늬종 시리즈 (골든트리, 골든엣지, 골든리본)



가우라 '골든트리' *Gaura lindheimeri* 'Golden Tree'



가우라 '골든엣지' *Gaura lindheimeri* 'Golden Edge'



가우라 '골든리본' *Gaura lindheimeri* 'Golden Ribbon'

베이비 시리즈 (베이비레드, 베이비핑크, 베이비퍼플, 베이비화이트)

베이비 시리즈는 우리꽃연구소가 교배육종 후 돌연변이 유가에 의해 육성한 품종으로 현재 하양, 핑크, 퍼플, 레드 그리고 골든트리로 대표되는 시리즈 품종이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키가 작고 많은 가지를 발생시켜 무한한 꽃을 피워내는 특징이 있다. 특히, 절간이 짧고 많은 가지 끝에서 피워내는 수많은 꽃을 4계절 감상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품종 등록되어 있으며 이미 유럽과 미국에 소개되어 시판 중이거나 시험재배 중이다.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최신의 품종들이다.



가우라 '베이비레드' *Gaura lindheimeri* 'Baby Red'



가우라 '베이비핑크' *Gaura lindheimeri* 'Baby Pink'



가우라 '베이비퍼플' *Gaura lindheimeri* 'Baby Purple'



가우라 '베이비화이트' *Gaura lindheimeri* 'Baby White'

리본 시리즈 (레드리본, 화이트리본, 핑크리본, 옹비)

리본 시리즈는 하양과 핑크색의 꽃잎에 무늬를 가지는 복색 꽃을 피우게 되는 품종으로 세력이 강하고 꽃이 큰 특징을 가진다.

키는 중간 정도 형으로 다른 품종에 비해 오후에 꽃을 빨리 피우는 품종으로 하루 종일 꽃이 만

개한 듯한 모습을 연출한다. 도로가에 열식하거나 혼합정원에 좋고 대형 분화용 식물로도 추천한다. 가우라 '옹비'의 키는 조금 크지만 꽃잎에 선명한 선홍의 선이 있어 매우 강렬한 품종이다. 적립형의 줄기에 꽃이 3~4개가 동시에 피는 특성으로

매우 화려하고 강한 품종이다. 특히 도로가의 열식이나 정원의 포인트 식물로 좋다.

줄기가 강건하고 세력이 좋아 재배가 매우 쉽다. 키를 낮추고 더욱 많은 꽃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연 2회 정도 커팅해 주면 더욱 많은 꽃을 볼 수 있다.



가우라 '레드리본' *Gaura lindheimeri* 'Red Ribbon'



가우라 '화이트리본' *Gaura lindheimeri* 'White Ribbon'



가우라 '핑크리본' *Gaura lindheimeri* 'Pink Ribbon'



가우라 '옹비' *Gaura lindheimeri* 'Yongbi'

나들이 시리즈 (펭귄나들이, 가을나들이, 사랑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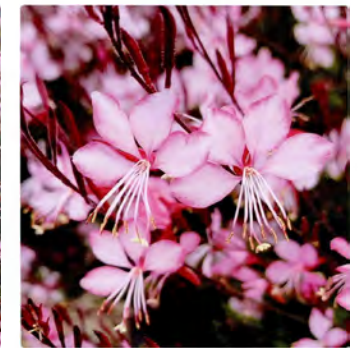
이 품종들은 가지가 늘어지는 형태로 자라며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일품이다. 행잉 바스켓에 기타의 꽃들과 함께 심어도 좋고 특히, 거리의 박스 화분 등에 심으면 좋다. 키가 크고 늘어지는 특성과 꽃이 오래가는 특성이 있어 대형군락 식재에도 알맞다.



가우라 '펭귄나들이' *Gaura lindheimeri* 'Penguin Trip'



가우라 '가을나들이' *Gaura lindheimeri* 'Autumn Trip'



가우라 '사랑나들이' *Gaura lindheimeri* 'Love Trip'



테마가 있는 식물 이야기



음지식물의 이해와 적용

지피력이 좋은 상록성 소재

상록양지꽃

Waldsteinia lobata

양지꽃은 좁양지꽃, 좁양지꽃, 돌양지꽃 등 그 종류가 다양하며 대부분 *Potentilla* 속이다. 하지만 양지꽃 중에서 중부 이북의 숲속 빈터에서 자라는 다년초로 나도양지꽃이 있는데 이 종류로는 *Waldsteinia* 속인 것이 이색적이다.

이번 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품종도 *Waldsteinia* 속의 식물로 나도양지꽃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겨울상록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름을 상록양지꽃(*Waldsteinia lobata*)이라 명명해 보았다. 음지 쪽에 적용할 수 있는 식물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더구나 상록성의 식물은 수호초, 송아, 맥문동 등 그 종류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런 면에서 상록양지꽃은 음지에 적용할 수 있는 상록성의 식물로서 적용 가치가 높은 품종이라 할 수 있다. 자라는 특성은 옆으로 런너(Runner : 딸기나 고구마 덩굴처럼 덩굴이 지상부에 깔아 가는 것, 포



복경)를 뻗으면서 자라는데 매우 조밀하게 뿌리 자리 지피력이 뛰어나고 생육도 강건하여 병해충 등 특별한 관리 없이도 잘 자란다.

꽃은 5~6월경 노랑색으로 피고, 화기는 짧으나 반면에 잎은 전체적으로 광택이 있어 질감이 좋아 잎 자체만으로도 관상 가치가 있는 식물이다. 실제로 유럽 등지에서 나무 아래 지피식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도심 속의 가로수 아래를 비롯하여 골프장, 식물원, 정원 등의 나무 아래를 비롯한 음지 지역에 군식하거나 수호초, 대사초류, 호스타류 등과 혼식해도 좋다. 음지뿐만 아니라 양지 쪽에 적용하여도 무난하게 잘 자란다.

번식은 봄, 가을에 런너를 각각 떼어내어 트레이



에서 키워 뿌리를 내린 다음 포트에 옮기거나 아니면 물관리에 신경을 더 써줄 수 있다면 바로 포트에 작상해 주어도 된다.

위에 언급했듯이 생육이 까다롭지 않고 강건하기 때문에 새로운 음지 식물로 적용을 적극 권장해 본다.



화본과 사초과 식물로 대표되는 그라스

사계절 연출이 가능한 그라스

몰리니아 *Molinia caerulea*



이번에 소개할 몰리니아는 한국 야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진피리새속의 식물로 산과 들, 습지에서 자라며 유럽, 동아시아 원산의 식물이다. 하지만 몰리니아는 한국자생의 진피리새와는 달리 줄기가 강건하고 포기의 형태가 좋아 조경용으로 적합하다. 몰리니아는 내한성이 강하고 한국기후에도 적용이 잘 되어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 한국 자생의 진피리새중 형태가 좋고 관상 가치가 높은 것을 분리하거나 개량해 조경에 사용해도 충분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몰리니아란 말은 '젓다, 움지이다'에서 유래되었다. 이름에서 보듯이 줄기가 여러 개가 모여나며 길게 올라와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는 것이 한국의 정서와도 잘 어울린다. 6~8월에 핀 꽃과 봄, 여름 동안의 진녹색의 잎과 줄기는 매우 깔끔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준다. 거기에 더하여 가을이 되면서 갈색 혹은 황금색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은 가히 일품이다. 그리고 겨울에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봄부터 겨울까지 4계절 모두 시기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전천후 그라스 품종이다. 또한 대가 튼튼하여 웬만한 바람이나 비에 쓰러지지 않아 관리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고급조경에 사용되어지는 그라스류 중 역시 모닝라이트, 역시 그랜라이트, 무늬역새 등은 포기가 크고 형태가 좋아 단독식재, 포인트 식재에도 좋지만 몰리니아는 잎의 길이가 짧고 줄기가 높이 솟아 단독식재나 포인트 식재보다는 군식 또는 동선 옆으로 2~3 군식 또는 동선 옆으로 2~3줄로 열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단지 ARI(아리) 가든을 조성할 때에는 부분적으로 2~3포기 정도 모아 심는 것은 관습을 짓는다.

키가 큰 품종은 (*Molinia caerulea* 'Heidebraut') 80~100cm 정도 자라고, 작은 품종은 (*Molinia*

caerulea 'Moorhexe') 30cm 정도 자라는데 그라스원을 조성할 때 역새류(무늬역새, 모닝라이트, 그랜라이트 등) 앞쪽으로 심어 돋보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른 그라스류와 마찬가지로 몰리니아도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라며, 관리에 크게 손이 가지 않는 것과 해가 지날수록 더욱 보기가 좋아진다. 군식용으로 많이 쓰는 역새 외에도 몰리니아를 사용하여 현장을 더욱 다양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향기식물 허브 이야기

차이브(CHIVES)

Allium schoenoprasum

차이브는 부추과의 식물로 잔디와 비슷한 생김새의 줄기는 3월부터 10월까지 자랄 수 있는데 이것은 음식의 향을 좋게 하기 위해 쓰인다. 말리게 되면 가치가 사라지는데 겨울에는 한두 개 화분을 실내에 두고 키우거나 아이스크림(각방) 방법으로 얼릴 수도 있다. 차이브는 3월에 파종하는데 화분에서 키운 표본을 봄이나 가을에 심으면 더 키우기 쉽다. 물은 정기적으로 주어야 하고 습한 땅과 햇빛이 잘 드는 곳이 적합하다. 주방에서 사용할 때

는 토양층의 1인치 이내의 부분을 잘라서 사용한다. 봄에 피는 꽃도 매우 아름다워 정원용 식물로도 좋은 소재이다. 주기적으로 잎을 얻으려면 개화한 꽃봉오리는 남겨두면 안 된다.

차이브는 많은 용도가 있는 약초인데 잘게 썬 차이브는 감자 샐러드나 속을 채운 계란 요리, 스프, 샐러드, 오믈렛, 크림치즈와 소스에 쓰인다. 사람들



이 키워야 하는 허브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암석가든용 식물

가장 낮은 가을까지 보석 같은 꽃을 피우는

하늘용담

Gentiana septemfida 'Mountain Blue'

하늘용담은 지금까지의 용담과는 완전히 개념부터 다른 특성을 가진 식물이다. 키는 10~20cm로 작고 잎에 윤기가 있으며 마디의 절간이 매우 작다. 여름하고가 없으며 병충해가 거의 없어 생육은 매우 강건한 식물이다. 건조지나 약간의 습지에서도 잘 자라 일반적인 산용담이나 칼일용담, 큰용담 등 꽃이 넓 아름답거나 생육이 나빠 조경에 잘 이용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잎의 모양, 식물

품, 꽃의 모양, 화색 그리고 화기까지도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좋은 식물이다. 꽃은 9월 말에 시작하여 11월 말까지 피며 서리를 맞아도 약간의 살얼음이 어는 초겨울까지 꽃을 피우는 내한성이 매우 강한 식물이다. 꽃은 집으면서도 밝은 느낌의 별모양이며 줄기마다 많은 꽃을 피운다.

해가 지면 꽃잎은 바람개비를 접은 모양으로 닫아 버리고 아침에 해가 떠 서리를 이슬처럼 녹여



내면 밝고 맑은 보석 같은 꽃잎을 하늘을 향해 열어 놓는다. 일반 화단은 물론 옥상, 락가든 어디에 적용해도 좋은 식물이다.



수중 수변식물의 이해

큰 무리를 이루면 더욱 효과적이다

부처꽃 탐 *Lythrum salicaria* "Top"

부처꽃은 일반적으로 냇가 또는 초원 등의 습지에서 자생하며 현재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수변식물 수종이다. 생육이 강건해 특별히 생육환경을 가리지 않는 식물로서 특히 습기를 좋아하고 양지를 좋아해서 수변에서는 더욱더 그 자람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식물이다. 쫓불형의 분홍색의 꽃은 여름 수변공간을 시원하게 해주기도 한다. 왕성한 생육은 한 번 자리를 잡게 되면 다른 식물의 침범이 불가능하여 잡초와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부처꽃 탐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새로운 품종으로, 기존 부처꽃보다 경관적, 형태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부처꽃이다. 부처꽃 탐은 잎이 크고 줄기도 두껍고 튼튼하여 단단한 느낌을 주며 쓰러짐이 없고 동시에 꽃대도 길고 풍성하여 식물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느끼게 해준다. 특

히 밝은 진분홍색의 큰 꽃은 만개하면 마치 쫓불이 활활 타오르는 듯 강렬한 화려함을 전달해 준다. 큰 무리를 이루면 분홍색의 꽃물결이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수변에 대면적으로 군식해도 좋고 꼭 수변이 아니라도 넓은 공간에 군식해도 좋다. 그리고 다른 수변식물과 어울려 중간공간에 식재해도 좋다. 꽃이 워낙 크고 색감이 좋기 때문에 혼합식재 시에도 포인트식물로 활용이 가능하다. 생육이 강건한 식물이라서 특별한 관리는 필요하지 않으며 혼합식재의 경우 꽃이 지면 깔끔하게 컷팅해주는 것이 좋고 삼목으로 번식한다.



가든인 생생정보

장마 이후 텃밭 작물 관리 요령



- 1 고국, 토마토 등은 장마로 길어진 줄기의 지극대를 다시 묶어 준다.
- 2 무성해진 결가지를 제거하고, 병든 잎이나 줄기 등을 제거한다.
- 3 비닐 등으로 망상한 과일 채소들은 복합비료 등으로 작비를 해준다.
- 4 추비주는 시기는 비오기 전에 하면 더 좋고, 비오는 줄기에 닿지 않게 10~20cm 지점에 구멍을 내고, 뽕뽕만 골 넣어준다.
- 5 감장 무배추는 8월 20일 전후로 파종한다. 무는 반드시 직파한다.
- 6 상추나, 숙각, 깻잎 등 잎채소의 씨앗을 뿌리고, 맑은 포기는 솟아준다.
- 7 꼭이없이 올라오는 작물은 뿌리채취 제거해 준다.



구근식물이란 무엇인가?

화단에 심겨져있는 튤립을 본 적 있는가? 아래 부분이 등그름한 형태로 생겨 마치 양파와도 같이 생긴 식물을 구근식물이라 부른다. 구근류는 숙근초의 특수한 형태로서 저온, 고온, 건조 등의 불리한 환경에 견디기 위해 식물체의 일부인 잎, 줄기, 뿌리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하여 지하에 원형의 양분저장 기관, 즉 구근을 형성하는 식물이다. 비대한 기관의 종류와 형태의 차이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한다.



인경

비늘줄기라고도 하며, 줄기가 짧고 잎이 비대해진 것. 튤립, 아마릴리스, 히아신스, 백합 등이 있다.

괴경

덩이줄기라고도 하며 피막이 없는 상태에서 줄기가 비대해진 것을 말한다. 아네모네, 칼라, 칼라디움, 시클라멘, 구근베고니아, 글록시니아, 아네모네 등이 있다.

구경

알줄기라고도 하며 줄기가 비대해져 알뿌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글라디올러스, 프리지아, 크로커스, 콜치움, 익시아 등이 있다.

근경

뿌리줄기라고도 하며 줄기가 땅속으로 들어가 다소 비대해진 것을 말한다. 아이리스, 칸나, 꽃강강 등이 이에 속한다.

괴근

덩이뿌리라고도 하며 뿌리가 덩어리 형태로 비대된 것이다. 달리아, 라넡클러스, 글로리오사 등이 있다.



식물을 키울 때 알아두면 정말 좋은 정보들



앞이 아래로 축 처지고 시들었다.

- ✕ 물 주지 않은 경우 → 물을 충분히 준다.
- ✕ 너무 자주 물 준 경우 → 이끼균 개식 무덤 죽을 수 있다. 뿌리를 깨쳐서 색은 뿌리를 잘라낸 뒤 새 흙에 다시 심는다.
- ✕ 너무 오래 못 준 경우 → 새싹이 피었던 곳으로 옮긴다.



멀쩡해 보이는 앞인데도 자꾸 떨어진다.

- ✕ 물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경우 → 물을 충분히 준다.
- ✕ 너무 자주 물 준 경우 → 이끼균 개식 무덤 죽을 수 있다. 뿌리를 깨쳐서 색은 뿌리를 잘라낸 뒤 새 흙에 다시 심는다.
- ✕ 뿌리가 화분에 딱 한 경우 → 분갈이를 해 준다.



꽃이 피기도 전에 까맣게 말라죽는다.

- ✕ 물 부족인 경우 → 물을 충분히 준다.
- ✕ 햇빛 부족인 경우 → 빛은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옮긴다.
- ✕ 흙에 영양분이 없는 경우 → 액체비료를 준다.



앞 가장자리를 따라 갈색으로 타들어간다.

- ✕ 너무 강한 햇빛에 노출된 경우 → 그늘로 옮긴다.
- ✕ 건조한 공기 때문 → 상한 부분을 잘라내고 물을 자주 분무해서 공중 습도를 높인다.
- ✕ 자-치에게 영양분(비료)이 많은 경우 → 기존에 있던 흙을 반쯤 교체하고 새 흙을 바꿔주세요. 뿌리를 깨쳐서 색은 뿌리를 잘라낸 뒤 새 흙에 다시 심는다.



앞이 무성하는데 꽃이 피지 않아요.

- ✕ 햇빛이 부족한 경우 → 빛을 충분히 준다.
- ✕ 흙에 질소 성분이 너무 많은 경우 →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거름과 함께 꽃이 피는 비료를 줄 시기에는 질소보다 인산과 칼리의 성분이 많은 것을 선택한다.
- ✕ 화분에 뿌리가 딱 한 경우 → 분갈이를 해 준다.



버픽 BUDDY PICK

들어오세요!

- "정원은 자랑입니다."
- "정원은 품종입니다."
- "정원은 나눔입니다."
- "정원으로 들어오세요"



시정원수 수집 앱

정원수 15,308명
평생에 걸친 정원

